

Vol. 05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02. 01.

■ 농정이슈

농업전망 2016 관련 언론 동향 등

■ 정책브리핑

설 기간 농축산물 소비촉진대책 등

■ 연구지원

2015년 연간 국내총생산 등

■ 현장여론

지역의 농업관련 이슈 및 숙원사업



대외협력실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농업전망 2016 관련 언론 동향

○ [국제유가곡물가↓, 올해 농업경영비 3.3% 감소 전망 관련 보도]

- (농업경영비) ('15년) 2,167만 6천 원→ ('16년) 2,095만 7천 원(3.3%↓)

※ 투입재 1.7%↓, 사료 가격 1.4%↓

- (농업 생산액) 43조 7,950억 원(3.3%↓)

- (호당 농가소득) 3,704만원(0.1%↑), 농외소득, 이전소득 증가로 농가소득 소폭 증가 전망

자료 : OBS·SBS·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에너지경제·전북도민일보·한국농어민신문·헤럴드경제(2016.01.20.)
/ 경인일보·농촌여성신문·전남일보·전업농신문(2016.01.21.) / 한국농업신문(2016.01.26.)

○ [식단 '육식화' 가속...소비량, 곡물·채소↓ 육류↑ 관련 보도]

- (곡물·채소 소비량) △7대 곡물 소비량·('95년) 191.7kg → ('14년) 143.5 (연평균1.5%↓),
△5대 채소·131.3kg → 123.5 (0.3%↓), △6대 과일·46.4kg → 43.7 (0.3%↓) △열대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 4.8kg → 13.3 (5.4%↑)

- (3대 육류) ('95년) 27.4kg → ('14년) 45.8(연평균2.7%↑), ('25년) 50.3kg로 증가 전망 △
소득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풀이

자료 : KBS·OBS·SBS·국제신문·매일일보·연합뉴스·에너지경제·쿠기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6.01.27.)
/ 데이터뉴스(2016.01.28.)

○ [쌀 가격 관련 보도] 올 수확기(10~12월) 산지 쌀 가격 15만 2,158원/80kg 전망, 단경기(7~9월) 정부 시장개입 없을 시 14만 3,000원/80kg 내외

- (쌀 공급량) 608만 8,000톤 (9.9%↑),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 2.2% 감소

- 쌀 수급 균형 달성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필요

자료 : 머니투데이(2016.01.20.) / 한국농어민신문(2016.01.23.) / 아시아투데이(2016.01.25.)

○ [축산류, 한우가격 관련 보도] 전년 대비 상승·('14년) 1만 4,283원 → ('15년) 1만 6,284 (14%↑)

→ ('16년) 1만 6,691원(2.5%↑) 예상,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세 지속 원인

- △올해 쇠고기 생산량 24만 톤(6%↓) 예상, △10월 김영란법 시행 시 추가
수요 위축 가능성

- 쇠고기 수입량은 30만 8,000톤으로 3.6% 증가 예상

자료 : 경기일보·국민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투데이·한겨레·헤럴드경제(2016.01.25.)
/ 조선일보·한국농업신문(2016.01.26.)

㉔ 농정이슈

□ 할랄식품정책 관련 언론 동향

- [농식품부, 할랄식품정책 관련 브리핑 자료 배포, 1.21.] 최근 언론 및 SNS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할랄식품정책 관련 설명자료 배포
 - 할랄식품 수출대책(15.6) 추진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단지 조성** 관련 언론 및 SNS에서 반대 여론 확산
 - ※ 경향신문(1.7.) 보도 “할랄식품단지 추진에 기독교계 반발” 등
 - (오해1. 2016년까지 5,500억 들여 할랄식품단지 조성) 2016년까지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할랄식품단지가 아님
 - (오해2. 50만평을 할랄식품기업에 50년간 무상임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 면적은 13만 6천 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해외식품기업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적요건** 갖출 경우 100% 감면 가능
 - (오해3. 충분한 검토없이,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 창출 위해 졸속 진행) △지난해 6월 수립된 **할랄식품 수출 대책 추진 과제**의 하나로 검토해왔으며, 현재 국내외 할랄식품 기업의 입주 수요, 단지조성 시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중
 - 할랄식품기업의 입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별도 할랄식품 구역 지정 계획 없음**
 - 국내외 할랄식품기업들 수요 확대로 별도 할랄식품 구역 필요 판단되면 **일정 수준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 예정**
 - (오해4. 할랄전용단지 내 할랄 도축장 건립되고, 3년 안에 이맘 100만 명 및 무슬림 도축인 7,103명 동시 입국 예정) △국내 할랄식품 기업에 무슬림 고용 의무 없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도축장 등 단순시설의 입주 금지
 - (오해5. 무슬림사원을 위한 병원, 학교, 아파트 등 신축 계획으로 무슬림집단 거주지 형성되어 테러의 배후지가 됨) 이슬람 등 특정 종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계획 없음
 - (오해6. 할랄식품 지원 정책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종교 편향적 정책) △종교적 관점이 아닌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할랄시장 및 코셔시장 등에 대한 정책 추진 중, △네슬레 등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도 할랄식품시장 진출 위해 노력
 - (오해7. 비무슬림국가에서 할랄산업에 세금 투입하는 나라는 한국 뿐) 일본, 호주 등 다양한 비무슬림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지원정책 추진 중

㉔ 농정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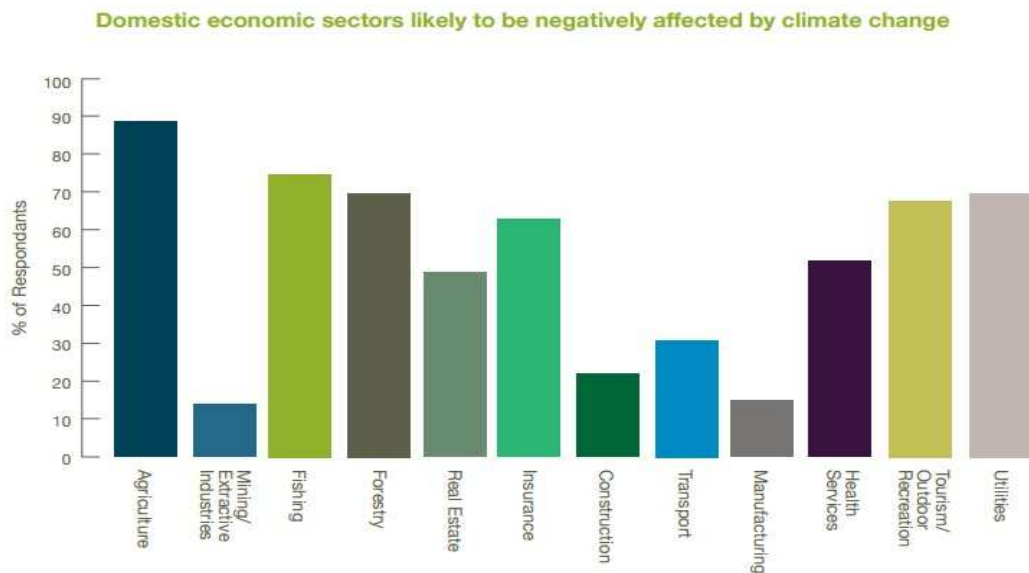
- [경향신문, **익산에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계획 백지화, 1.25.**] 최근 두드러진 반대 여론과 유언비어로 할랄단지 조성 계획 전면 백지화
 - (농식품부 해명) 졸속 추진은 사실이 아니며, 입주 수요 미미하여 별도 할랄식품 구역 지정할 필요성 적다는 판단, 일정 수준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국민일보, **“익산 할랄식품 단지 중단”1,000만 인 서명운동 벌인다, 1.29.**]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등 60여개 단체 서명운동 실시
 - 한반도 이슬람화의 교두보가 될 할랄식품 단지 조성 철회 요구

자료 : 주간무역스포츠조선인천일보뉴시스한국경제연합뉴스새전북신문이투데이아시아투데이내일신문전북일보전민일보전업농신문경향신문농촌여성신문서울신문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2016.01.21.) / 경향신문(2016.01.24.) / 국민일보(2016.01.29.)

참고 : 농식품부 브리핑자료_「할랄식품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2016.01.21.)

㉕ 이상 기후, 농업에 가장 피해

- [경향신문, **“세계 경제 휩쓰는 기후변화 쓰나미” 보도, 1.26.**] 뉴욕대 법대 정책 통합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인용
 - (언제 기후변화가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까) 이미 진행되고 있다 (41%), 2050년(26%) 순
 -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분야) 농업(94%), 어업(78%) 순



㉔ 농정이슈

- [농민신문, “4계절 내내 이상기후...‘농업 가장 큰 피해” 보도, 1.27.] 올해 슈퍼엘니뇨의 영향으로 봄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있어 시급한 대응 절실
 - 2월 겨울황사, 4월 이상저온, 5월 이상고온, 6~7월 마른장마, 8월 폭염, 9~10월 가을가뭄, 12월 이상고온까지 **של 새 없는 이상기후 현상**
 - (저수율) 현재 60% 수준, 5월 모내기 전까지 평년(85%) 수준의 저수율 회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 지난 해 전국의 1,025개 저수지 대상 준설작업이 도움될 수도
 - (종합대책마련 시급) 현재까지의 대응은 사후 대응에 중점, 임기응변식 대책 중단해야

참고 : 경향신문(2016.01.26.) / 농민신문(2016.01.27.)

자료 : Institute for Policy Integrity(New York Univ. School of Law)_「Expert Consensus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㉕ 한파·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대응

- [한국농어민신문, “한파·폭설 멎었지만...농산물 수급 차질 우려 고조” 보도, 1.29.] 폭설로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 고조
 - △전북...비닐하우스 157개동 붕괴, 12.59ha 피해 집계, △전남...비닐하우스 11개동 붕괴 등
 - 전남 해남·진도의 배추·대파 수확 차질, 제주의 무·당근·브로콜리 등도 출하량 감소 예상
- [농식품부,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발표, 1.26.] 주요 채소류 출하 안정 찾을 때까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 시장 공급 확대 예정
 - 정부 비축물량(배추 2천 톤, 무 6.5천 톤)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 시장 방출
 - 농협 계약재배 물량 및 생산안정제(배추 1만 톤) 물량의 출하 조절
 - ※ 배추 36,571톤, 무 46,185톤, 대파 2,728톤, 당근 10,894톤

자료 : m이코노마국제뉴스뉴스아시아경제위클리오늘이뉴스투데이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제민일보(2016.01.26.) / 한국농어민신문 (2016.01.29.)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파, 폭설에 따른 채소류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2016.01.26.)

㉔ 농정이슈

□ 재고쌀·적자…RPC가 위태롭다

○ [농민신문, RPC가 위태롭다 보도, 1.25.] 재고쌀·적자 등의 문제로 영세 RPC 줄도산 위기

- 쌀값 하락세 지속되면서 지난 해 수확기 벼를 대거 사들인 RPC의 경영기반 흔들리는 중…쌀 판매가격이 벼 매입 원가를 밀돌아
- **지난 해 농협 RPC가 사들인 벼는 177만 톤**…전체 생산량 433만 톤의 41%, 농협 역사상 가장 많은 벼를 사들인 해
- 올 단경기 산지 쌀값도 14만 3,000원/80kg으로 영세 RPC 우려 커지는 중
- 정부의 시중 재고 일부 격리 등 **수급 안정 정책 필요**

자료 : 농민신문_「재고쌀·적자…RPC가 위태롭다」(2016.01.25.)

농민신문_「올해도 대규모 적자 뻘해…“추가격리뻘”」(2016.01.25.)

□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 [농식품부,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 1.27.] 다양한 지역별 겨울철 농산물 수확 및 가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 선정

▮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 역	마을명	관련 체험	연계 관광자원
경기	양평 모꼬지	유기농 딸기체험, 딸기잼만들기	용문산, 중원산, 민물고기 전시장
	양평 여물리	딸기 체험, 딸기풍뎡만들기	잡곡 공원, 용문산 관광지
강원	삼척 맹방유채꽃	딸기수확, 딸기쿠키만들기	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충남	논산 포전	딸기수확, 딸기풍뎡	탑정호, 백제군사박물관, 옥녀봉
전북	완주 인덕	참나물 수확체험, 유기농 쌈채	연리지, 송광사, 비봉사
	진안 능길	똥단지 수확체험, 연만들기	마이산, 용담댐, 덕유산
전남	담양 황금	유기농토마토 체험, 짚신공예	죽녹원, 메타세콰이어 길
경남	사천 비봉내	딸기수확, 딸기떡만들기	디솔사, 비토섬, 항공박물관
	남해 해바리	해풍시금치, 시골 비빔밥	원시어업 죽방렴, 독일마을
	하동 북방	딸기수확체험, 딸기풍뎡	최참판댁, 쌍계사, 화개장터

자료 : 국민일보·베리타스알파·아주경제·연합뉴스·전북도민일보(2016.01.27.)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 선정」(2016.01.27.)

정책브리핑 설 기간 농축산물 소비촉진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1.22.)

□ 개요

-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 점검회의 실시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대책 발표, 1.21.] 설 전 2주간 성수품 수급 안정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집중 추진
 - (설 성수품 소비패턴) 설 전 10일간 농축산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변화
 - ※ 제수용·선물용 수요가 많은 품목인 배(8.3배), 소갈비(4.4배), 사과(2.1배) 및 소고기(1.7배) 등은 평상시보다 크게 증가

┃ 과일 명절 소비 증가율 ┃

품 목	평년 평균(원) (1가구당 1일 평균 구매금액)	설 · 추석 전 10일간 증감률(%)	
		설 소비량 증감률(%)	추석 소비량 증감률(%)
감	92.68	218.3***	38.3*
감 굴	186.39	243.1***	-59.6***
견과류	111.54	80.3***	96.0***
딸 기	135.94	133.9***	-93.7***
바나나	87.93	-30.5***	-22.6***
배	48.42	827.4***	946.1***
사 과	218.81	208.4***	246.7***
오렌지	73.36	-18.6	-64.8***
키 위	26.11	43.7***	37.0**
토마토	124.95	-71.8***	-61.4***
파인애플	12.94	-0.5	-32.9**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아래 동일 적용)

▣ 돼지고기·닭고기 명절 소비 증가율 ▣

품 목	평년 평균(원) (1가구당 1일 평균 구매금액)	설·추석 전 10일간 증감률(%)	
		설 소비량 증감률(%)	추석 소비량 증감률(%)
닭고기 전체	572.79	-22.6***	-20.7***
돼지고기 전체	1274.91	29.9***	32.6***

▣ 소고기 명절 소비 증가율 ▣

품 목	평년 평균(원) (1가구당 1일 평균 구매금액)	설·추석 전 10일간 증감률(%)	
		설 소비량 증감률(%)	추석 소비량 증감률(%)
소고기 전체	800.27	170.4***	140.1***
갈 비	66.63	435.3***	506.9***
등 심	95.61	89.7***	55.0***
목 심	17.56	120.9***	115.5***
사 골	48.31	339.2***	77.0***
사 태	22.16	1241.8***	42.7**
설 도	24.74	199.7***	119.9***
안 심	19.42	87.6***	93.7***
앞다리	17.11	102.7***	176.7*
양 지	94.37	212.6***	131.6***
우 둔	16.65	234.6***	195.0***

○ [주요 농산물 수급 전망] 전반적인 공급 여력은 충분

- (채소류) 배추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다소 감소하나 계약재배·수매비축물량 출하 조절 등으로 설 기간 안정적 공급 가능
- (과일류) 사과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하여 공급 원활, 배는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공급량 다소 부족
- (축산물) 한육우 제외한 돼지, 닭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공급 여력 충분
- (임산물) 밤 생산량 평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재고량이 많고, 대추는 생산량이 큰 폭 증가하여 공급 원활

㉔ 정책브리핑

□ 소비촉진대책

- [설 전 2주간 10개 중점 관리 품목 공급량 확대] 평시 4.9천 톤(10대 성수품, 1일) 수준 성수품 공급 물량을 1.4배 수준인 7.1천 톤까지 특별 공급
-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 “설맞이 우리 농산물 특판행사” 통해 실시
 - 전국 2,127개소 농협 하나로클럽·마트 및 산림조합 판매장 참여
 - 설 성수품 및 선물세트 시중가 대비 10~50% 할인 판매
- [직거래 장터 개설] 바로마켓과 지역농협 등 전국 동시 개설
 - 바로마켓(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농협 직거래장터(176개소) 등에서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 판매
- [온라인마켓, 공영홈쇼핑 집중 판매] 공영홈쇼핑에서 129회 이상 편성·방송 계획
 - 농협 a마켓, aT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등에서도 할인 판매 실시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1.27.)

☐ 농작물 재해보험

- **['16년 추진계획]** 가입률 목표…('15) 21.8% / 186천ha → ('16) 24.0 / 205
 - **(대상품목 확대)** ('15) 46개 → **('16) 50** (+4, 양배추, 오미자, 밀, 시설미나리)
 - **(전국(본)사업 전환)** ('15) 28개 → ('16) 32 (+4, 포도, 시설 부추상추시금치)
 - **(과수 종합위험보장 사업확대)** ('15) 배 30사군, 단감 12, 사과 3 → ('16) 배 전국, 단감 30, 사과 12, 뽕은감(신규) 3
 - **(상품개선 강화)** △**벼 무사고환급제도** 및 **가뭄 미이양보장** 신설, △보장비율 강화(80% → 85-90%, 12품목 → 20), △할인·할증 개선(-25%~+40→ ~30~+30), △과수 가입금액 증액 특약, △원예시설 가입면적 완화(1,000㎡→800) 등
 - **(사업추진체계 정비)** 전담기관을 통한 상품개선협의회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상품연구 강화, '18년 이후 도입품목 검토·선정, 재해 및 보험통계 구축 등
 - **(손해평가체계 확립)** 모의손해평가 연습, 손해평가사 활용방안 마련

☐ 가축 재해보험

- **['16년 추진계획]** 가입률 목표…('15) 90.7% / 소 6.8 → ('16) 91.0 / 7.5
 - **(사업자 확대)** ('15) 2개(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움) → ('16) 3(+한화손해보험)
 - **(제도개선)** △소 가입기준 완화(전부→70% 이상), △축사 임대농 보험료 지원, △축사특약 가입조건 완화 등
 - **(상품개선)** △폐사 가축 폐기비용 보상상품 도입 검토, △자기부담비율 다양화(소), △할인·할증제 도입, △현장수요가 없는 축종 보험제외 추진, △폭염 환급금 처리방법 개선(경과율 적용) 등
 - **(사업관리 및 홍보 강화)** △보험사기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위험관리점 검회의, 지급심사 강화, 실태점검 등), △지자체 및 관련기관 설명회, △보도 자료·기고 등 다각적인 홍보 실시

연구지원 2015년 연간 국내총생산

자료 : 한국은행(2016.01.26.)

주요내용

- [한국은행, 2015년 연간 국내총생산 발표, 1.26.] 2015년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6% ↑
 -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 확대, 설비투자가 견실한 성장세 유지하였으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수출은 성장세 둔화
 - 농림어업 부문은 전년 대비 1.6% ↓
 -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유가 하락등으로 교역조건 개선됨에 따라 전년 대비 6.4% ↑

지출항목별 및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

(전년 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P	2015 ^P
국내총생산(GDP)	6.5	3.7	2.3	2.9	3.3	2.6
민간소비	4.4	2.9	1.9	1.9	1.8	2.1
정부소비	3.8	2.2	3.4	3.3	2.8	3.3
건설투자	-3.7	-3.4	-3.9	5.5	1.0	4.0
설비투자	22.0	4.7	0.1	-0.8	5.8	5.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9	6.9	8.6	4.4	4.6	1.4
재고증감	3.4	0.9	-0.6	-1.0	0.5	1.1
수출	12.7	15.1	5.1	4.3	2.8	0.4
수입	17.3	14.3	2.4	1.7	2.1	3.0
농림어업	-4.3	-2.0	-0.9	3.1	2.6	-1.6
제조업	13.7	6.5	2.4	3.6	4.0	1.4
전기가스및수도업	5.9	0.2	4.0	-0.3	2.2	5.6
건설업	-3.7	-5.5	-1.8	3.0	0.6	3.2
서비스업	4.4	3.1	2.8	2.9	3.1	2.8
국내총소득(GDI)	6.6	1.1	2.3	4.0	3.7	6.4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전년 동기 대비, %)

	2014 ^P					2015 ^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5.6	3.3	1.4	1.3	2.6	6.3	-4.7	-0.7	-4.5	-1.6
광공업 Manufacturing, mining and quarrying (제조업) (Manufacturing)	5.1	5.1	3.3	2.4	3.9	0.7	0.8	1.7	2.3	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0.9	0.6	3.9	3.8	2.2	3.0	4.7	9.5	5.8	5.6
건설업 Construction	2.1	0.4	1.5	-1.0	0.6	0.2	-0.1	4.6	7.1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staurants and hotels	4.0	2.0	2.5	1.7	2.5	1.8	1.9	1.4	3.2	2.1
운수 및 보관업 Transportation and storage	1.5	0.7	3.1	4.4	2.4	3.7	3.0	2.8	2.1	2.9
금융 및 보험업 Finance and insurance	5.2	5.6	5.6	6.5	5.7	7.2	7.4	6.5	5.7	6.7
부동산 및 임대업 Real estate and leasing	1.6	1.8	2.1	1.7	1.8	1.8	1.8	1.6	1.5	1.7
정보통신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3.0	2.5	4.1	3.1	3.1	2.6	2.1	3.3	2.2	2.5
사업서비스업 Business activities	5.5	2.7	4.0	4.2	4.1	4.2	4.0	3.7	2.6	3.6
공공행정 및 국방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2.6	2.5	2.5	2.3	2.5	2.6	2.7	2.6	2.6	2.6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0.9	0.9	0.4	0.4	0.7	0.5	0.5	0.4	0.6	0.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Health and social work	7.8	7.2	7.0	7.9	7.5	7.4	4.5	4.8	6.4	5.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Cultural and other services	4.1	2.5	2.8	1.7	2.8	0.2	0.3	-1.0	-0.3	-0.2
총부가가치(기초가격) Gross value added at basic prices	4.0	3.3	3.1	2.6	3.2	2.3	1.9	2.5	2.7	2.4
순생산물세 Taxes less subsidies on products	3.5	4.4	5.7	3.4	4.3	4.1	5.5	4.4	5.6	4.9
국내총생산(시장가격) Gross domestic product at market prices	3.9	3.4	3.3	2.7	3.3	2.5	2.2	2.7	3.0	2.6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Trading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the terms of trade	-	-	-	-	-	-	-	-	-	-
국내총소득 Gross domestic income	4.8	3.7	3.0	3.6	3.7	6.2	6.4	7.0	6.1	6.4

2015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자료 : 통계청(2016.01.27.)

주요내용

- [2015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이동자 수 775.5만 명, 전년 대비 1.7%↑
 - (연령별 이동률) 30대(22.3%), 20대(22.0%) 순
 - (순유입) 세종(29.0%) > 제주(2.3) > 경기(0.8) 순
 - (순유출) 서울(-1.4%) > 대전(-1.4) > 광주(-0.6) 순
 - (전입사유) 주택(43.9%) > 가족(23.2) > 직업(21.2) 순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천 명, %, %p)

연도	이동자 수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구성비	시도간	구성비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70	4,047	2,780	68.7	1,266	31.3	12.6	8.6	3.9
1980	8,259	5,653	68.4	2,606	31.6	21.7	14.8	6.8
1985	8,679	5,754	66.3	2,925	33.7	21.3	14.1	7.2
1990	9,459	6,228	65.8	3,231	34.2	22.1	14.5	7.5
1995	9,073	6,208	68.4	2,865	31.6	19.9	13.6	6.3
2000	9,009	6,164	68.4	2,846	31.6	19.0	13.0	6.0
2005	8,795	5,980	68.0	2,815	32.0	18.1	12.3	5.8
2006	9,342	6,395	68.5	2,947	31.5	19.1	13.1	6.0
2007	9,070	6,148	67.8	2,922	32.2	18.5	12.5	5.9
2008	8,808	6,016	68.3	2,792	31.7	17.8	12.2	5.7
2009	8,487	5,758	67.8	2,729	32.2	17.1	11.6	5.5
2010	8,227	5,564	67.6	2,662	32.4	16.5	11.2	5.3
2011	8,127	5,523	68.0	2,605	32.0	16.2	11.0	5.2
2012	7,507	4,994	66.5	2,513	33.5	14.9	9.9	5.0
2013	7,412	4,988	67.3	2,423	32.7	14.7	9.9	4.8
2014	7,629	5,121	67.1	2,508	32.9	15.0	10.1	4.9
2015	7,755	5,204	67.1	2,551	32.9	15.2	10.2	5.0
전년 대비	증 감	126	82	0.0	43	0.0	0.2	0.1
	증감률	1.7	1.6	-	1.7	-	-	-

시도별 전입, 전출 및 순이동

(천 명, %, %p)

이동자 수(천 명)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년대비		
	2005	2010	2014	2015	2005	2010	2014	2015	2005	2010	2014	2015	증감률(%)		증감
													총전입	총전출	
전국	8,795	8,227	7,629	7,755	8,795	8,227	7,629	7,755	0	0	0	0	1.7	1.7	0
서울	1,991	1,733	1,574	1,589	2,042	1,848	1,661	1,727	-51	-115	-88	-137	1.0	3.9	-49
부산	553	519	486	507	590	548	501	521	-37	-28	-15	-14	4.4	4.0	2
대구	440	371	350	351	465	383	366	364	-25	-12	-16	-13	0.3	-0.4	3
인천	502	462	452	473	491	458	443	464	11	4	9	10	4.6	4.7	0
광주	290	269	243	225	298	265	246	234	-7	4	-3	-9	-7.6	-4.9	-6
대전	288	262	240	221	285	263	248	241	3	-1	-9	-21	-7.8	-2.8	-12
울산	170	161	176	170	170	165	173	170	-0	-4	3	-0	-3.2	-1.6	-3
세종	-	-	57	84	-	-	23	31	-	-	33	53	48.6	34.2	20
경기	2,197	2,169	1,892	1,993	2,028	2,026	1,834	1,898	169	142	57	95	5.4	3.5	37
강원	246	242	228	227	257	241	226	222	-11	1	2	5	-0.5	-1.7	3
충북	236	236	216	215	241	230	214	213	-5	6	2	1	-0.6	-0.2	-1
충남	325	318	290	290	320	302	280	280	5	16	10	10	0.1	-0.0	0
전북	312	306	274	262	336	308	277	265	-24	-2	-3	-3	-4.6	-4.4	-0
전남	284	266	260	250	304	276	261	246	-20	-10	-1	4	-3.9	-5.6	5
경북	375	355	337	345	386	358	338	345	-12	-4	-1	-1	2.3	2.2	0
경남	493	482	462	455	488	479	456	450	6	3	6	5	-1.5	-1.3	-1
제주	93	77	93	98	94	77	81	83	-1	0	11	14	5.5	2.4	3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천 명)

권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도권	129	112	83	52	44	31	-8	7	-4	-21	-33
중부권	-8	2	12	18	11	22	35	33	28	39	49
호남권	-52	-47	-32	-23	-9	-9	-2	-10	-7	-6	-8
영남권	-68	-65	-60	-45	-45	-44	-26	-35	-25	-23	-22

현장여론 지역의 농업관련 이슈 및 숙원사업

자료: KREI리포터를 대상으로 창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6. 1. 1. ~ 1. 27.(총 28건)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지역의 농업관련 이슈 및 숙원사업

- **남양주 지역은** 서울에서 5km정도 떨어진 도농복합도시로서 약 65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약 1.5%의 1만 8천 명의 농업인구가 있음. 구리 농수산물시장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인근지역으로 농산물 판로에 걱정 없는 편임. 최근 도시 농업에 관심이 많아 전문농업인 지원 보다 **도시농업 지원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쌀 보다 시설원에 농가가 많음.**<김용덕, 경기 남양주>
- **경남 통영에서는** 지난해 520톤의 유자를 생산하였음. 유자는 식재료는 물론 씨를 이용한 미용재료로 활용하고 있음. 국내 최초 유자씨 가공공장을 세워 유자씨를 건조, 압착, 정제, 향 첨가 등의 과정을 통해 미백효과가 뛰어난 화장품으로 변신시켰고 연 3억 원의 수익을 예상할 만큼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버리던 유자씨를 오히려 수입원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이현순, 경남 통영>
- **부산 기장군은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고 있어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과 로컬푸드 사업 등이 점차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해 각 분야 전문적인 교육 및 지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최시훈, 부산 기장>
- **안산지역은** 78만 인구에 1%도 안 되는 6천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규모는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포도 550ha, 수도작 450ha, 채소 400ha 등임.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 지소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중점 추진해주시기 바람.<이익영, 경기 안산>

- 함양지역은 천억이란 예산을 들여 2~3년 전부터 2020년 산양삼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음. 현재 산양삼 농사하시는 분들은 1년에 20억의 소득을 올리기도 힘든데 천억이란 돈을 들여 진행하는 것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단 분위기임. 일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나갔음에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함양 산양삼이 전국 최고라며 밀어붙이기식 홍보로 지자체 정책에 반감을 표하는 지역민이 생겨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박태우, 경남 함양>
- 정선지역은 해발 500m이상으로 형성된 산촌으로 주로 고랭지채소 또는 가을 감자를 주 작물로 하고 있음. 시장개방으로 최근 농산물 가격하락과 지난해 계속된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마을별 공동으로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 마음 고생 덜어주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남진하, 강원 정선>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한해 영농계획을 돕고자 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재배기술, 새롭게 변하는 농업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읍 소재지에 위치한 발전소, 가스공사,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연구석, 경기 평택>
-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ICT융복합 사업은 필수조건임. 최소 2~3천만 원의 사업비 중 농업인이 50%를 자부담해야 하기도 하며 고령 농업인이 전자기기, 통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교육을 받는다 해도 ICT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했을 때 100% 활용 가능할지 의문임. 지속적인 컨설팅 등의 비용 증가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을 무조건 스마트 팜으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농업의 조직화, 전문화를 이루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김경태, 경기 용인>
- 마을만들기 종합소득사업은 운영주체가 마을이나 마을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법인체를 구성하면 추진력과 운영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마을 이장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사업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발생소득을 일부분 마을에 환원하더라도 법인과 마을주민 사이에 분란이 생길 수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역량 강화 교육과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임.<고정식, 제주 제주>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 합천지역은 전국 2위 양과 생산지인데 농산물 저온창고가 턱없이 부족함. 군 또는 면단위로 대형 저온창고 건립을 요망함.<조경연, 경남 합천>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올해 3억 평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함**. 미개발지역의 개발 중요성도 크지만 안정적이고 도시민이 귀촌을 꿈꾸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간지대, 오지 농지가 아닌 **마을 인근 농지가 대상이 되어 살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농지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함**.<윤석구, 경북 군위>
- 쌀직불금이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이 1ha당 25만원으로 쌀과 밭작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산간지대의 경지정리, 농로의 개보수, 가뭄대비 관수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 **농업·농촌 자금의 투자와 집행이 농업인을 위한 부분에 올바르게 활용되기 바람**.<최영호, 충남 부여>
- 농촌에서 일손부족이 심화되면서 남성 기준 하루 일당이 최하 10만원에서 기술보유 시 20만 원선으로 책정되는 실정임. 현지 쌀값이 80kg기준 13만원에서 15만 원선으로 형성되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5kg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벌어 1년 먹을 쌀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쌀 농업의 현실임**. 쌀 가격 보장과 현실성 있는 농정수립이 절실함.<최영호, 충남 부여>
- 농촌에서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나 농산물 택배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이 많음. 흙쇼핑이나 대형 거래처는 2,500원~3,000원 선의 배송비가 붙는다면 농산물은 4,000원~8,000원 까지 거래되고 있음. 많은 농업인들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비용,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농협의 택배사업을 시급히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박종임, 충북 괴산>
- 작년 여름, 가을의 심각한 가뭄과 잦은 겨울비 탓에 한해 기른 서리태 콩이 흉년이었음. 콩을 털고 체에 걸러 못한 콩을 일일이 선별해 타작하는 등 일이 쉽지 않은데 정부 고시가격은 1kg에 4,800원으로 6개월 농사지은 땀을 생각하니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음. 정부에서 농산물 수매에 한계가 있다면 **최저가격에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에 장려금을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를 도입해 농업인의 이탈을 막고 농업을 보호해주시기 바람**.<이길숙, 경기 안성>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